

numbers 제 31호



주요 내용

2020. 01.17

1.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2. ① 2020 새해 목표, 20대 '취업', 30대 '경제적 상황', 40대 이상 '건강'
②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어렵다' 61%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한국인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갈까. '가족'이다. 감정적/심리적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이 이상 있을 때, 금전적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 이웃, 직장 상사 보다 '가족'을 먼저 찾는다. 노후에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남편(아내)'와 함께 지내고 싶어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건강 다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꼽는다. 가정의 소중함이다.

곧 설이 다가온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31호는 명절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료들을 모아봤다. 한편으로, 최근 언론은 한국사회에 대해 갈등 문제, 인구 문제, 공정성 문제 등 어두운 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가치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자료를 모아서 제시해 보았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제시한 조사통계자료는 정부에서 3년 주기로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결과’로써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이하 각 페이지마다 자료 출처 표시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조사개요〉

- 조사제목 :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 조사대상 : 전국 17개 시도 만 19~79세 남녀
- 표본크기 : 5,100명(유효표본)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1.4%p
-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9년 8월 ~ 9월
- 조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갤럽조사연구소

1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살면서 겪는 문제를 5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후 ‘가족’, ‘연인’, ‘친구’, ‘이웃’, ‘전문가’ 등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물음. 그 결과 문제 발생 시 대부분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찾았으며 이어 ‘친구’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친구’는 감정적·심리적 문제에서 ‘가족’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장 많은 대상이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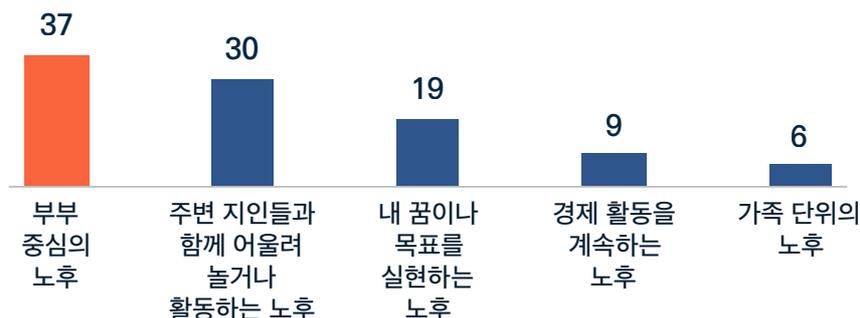
[그림] 문제 발생시 가장 먼저 찾았던 대상 (%)



● 인생의 마지막, 남편(아내)와 함께 지내고 싶다!

- 노후 생활 방식에 대해 ‘부부 중심의 노후’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변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놀거나 활동하는 노후’ 30%, ‘내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는 노후’ 1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남편(아내)와 함께 하겠다는 인식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특히 비혼, 미혼, 젊은 1인 가구들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임

[그림] 노후 생활 방식에 대한 선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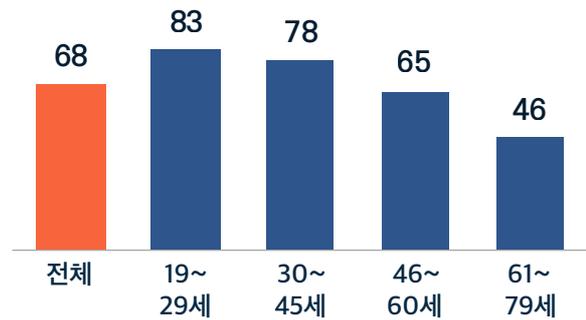
● 한국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건강>가정 순

-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건강'이 40%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21%로 2위, '경제적 풍요'가 17%로 3위를 차지함
- 사회 전반적으로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팽배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물질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상위 5위) (%)



[그림] 건강에 대한 만족도*(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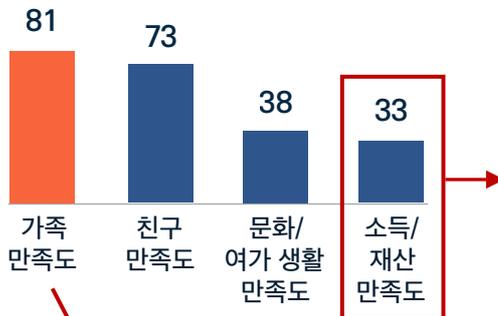


*10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7점~10점까지 합한 비율임

● 한국인, 가족 만족도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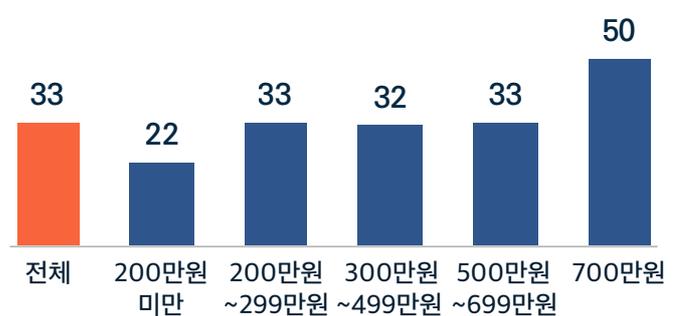
- 대부분의 우리 국민(81%)은 가족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재산 만족도는 33%인데, 특이한 점은 조사대상자 중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월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인 자도 만족도가 50%에 지나지 않음.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만족감을 채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족 만족도를 종교별로 보면, 각 종교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분야별 삶의 만족도 (%)



	개신교	불교	가톨릭	무종교
가족 만족도	81	80	72	82

[그림] 소득/재산 만족도(월 가구 소득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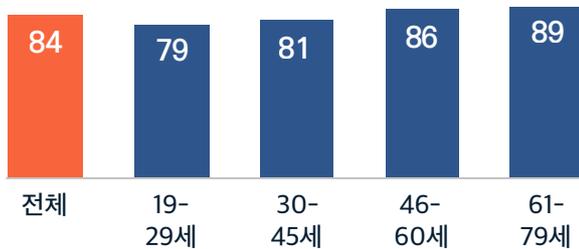


*10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7점~10점까지 합한 비율임

2 한국인이라는 것, '자랑스럽다'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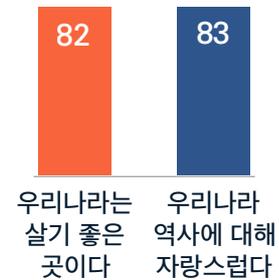
-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자부심은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젊은층에서도 매우 높게 나타남
- 또한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역사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그렇다 비율*) (%)



*각각 4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비율임

[그림] 한국인의 정체성(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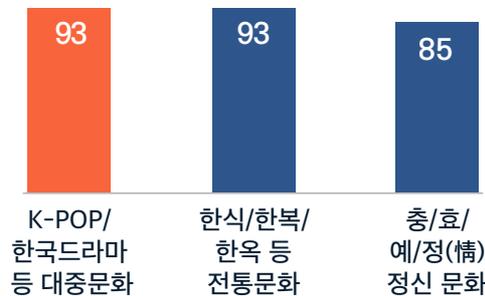


*각각 4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비율임

● 한국인, 문화에 대한 자부심 매우 높다!

- 우리 국민은 한국의 'K-POP/한국 드라마 등 대중문화'에 대해 무려 93%가, '한식/한복/한옥 등 전통문화'에 대해 93%가, '충/효/예/정(情) 등 정신 문화'에 대해 85%가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한국 문화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우수하다 비율*) (%)



*4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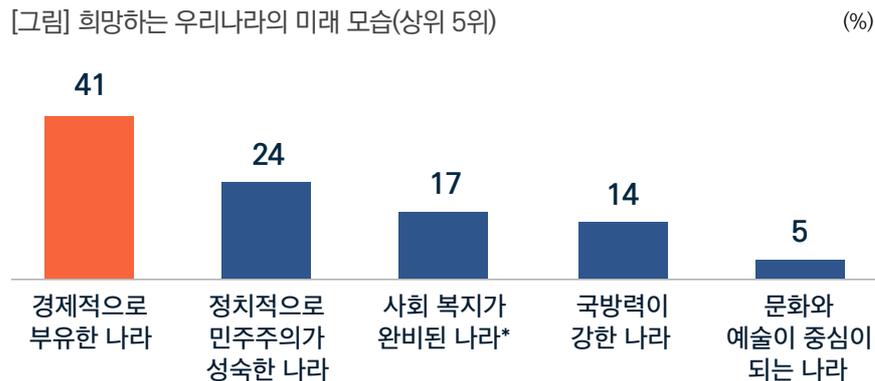
●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 '부지런함' 1위

-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우리 국민은 '부지런함'을 40%로 가장 높게 지적함. 다음으로 '인정이 많음' 11%, '책임감이 강함' 8%, '인내심' 8%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희망하는 우리나라 미래 모습, 1위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2위 정치적으로 성숙한 나라

-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24%,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 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치적 성숙도를 두 번째로 지적한 것은, 최근의 심각한 정치 갈등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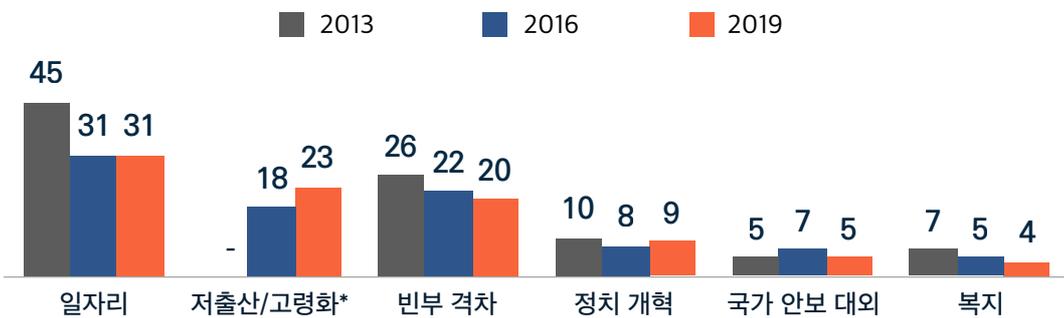


*사회복지가 완비된 나라는 2019년 수치로 제시함

3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저출산/고령화' 2위로 급부상

-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가 31%, '저출산/고령화' 23%, '빈부 격차' 20%, '정치 개혁'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 조사 결과 대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빈부 격차'를 제치고 2위로 부상함

[그림]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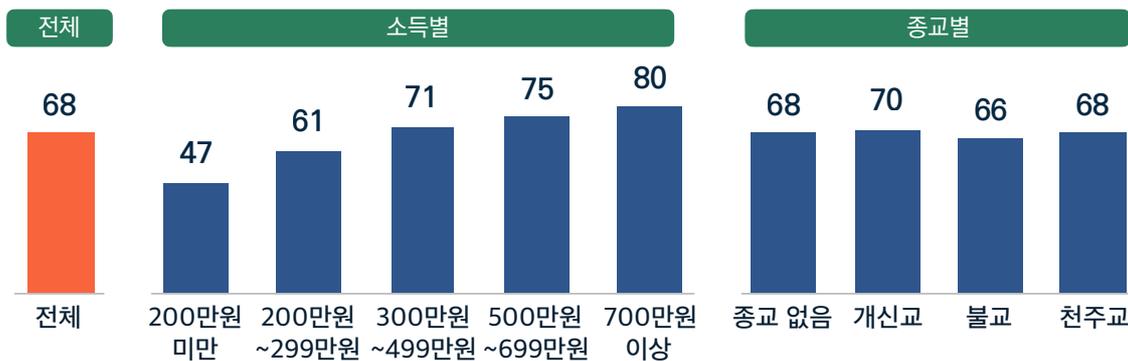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 수치는 2016년부터 보기로 제시함

4 현재 하고 있는 일, '가치 있다' 68%

-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응답해 현재의 일에 대한 어느정도 소명 의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인식은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높은 경향이 뚜렷함. 한편, 월 소득 '200만 원대'인 경우 낮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울텐데도 61%나 '가치 있다'고 응답해 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음
- 다만, 종교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가치 있다' 비율, 월 가구 소득/종교별) (%)



*10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7점~10점까지 합한 비율임

5 60대 이상 노인층, 노후 생활 부담 '내가 져야' 75%

- 노후생활에 누구의 부담이 가장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본인이나 배우자'가 75%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복지제도' 21%로 응답했으며, '자녀나 자녀의 가족'은 5%로 미미함
- 이와 같은 인식은 젊은층이나 노년층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노후에 대해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시대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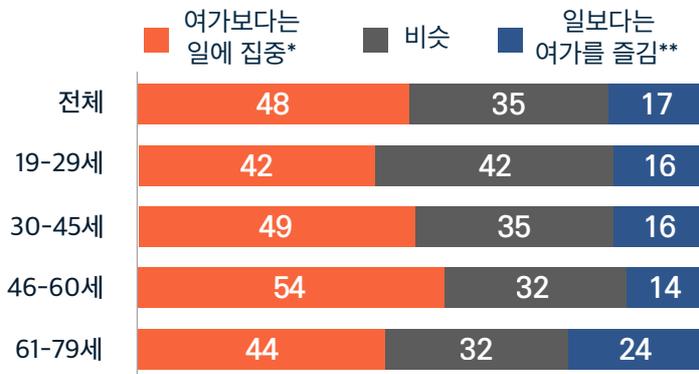
[그림] 연령별 노후 부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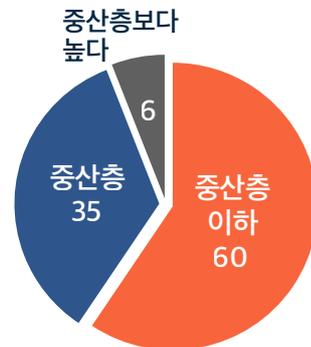
● 60-70대 고령층, 노년임에도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44%

- 우리 국민들이 일과 여가를 어떤 비중으로 두고 살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한다' 48%, '일보다는 여가를 즐긴다' 17%로 전체적으로 여가보다는 일을 더 중시함
- 이와 같은 결과는 60-70대 고령층의 경우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도 있지만, 경제적 소득이 필요한 현실적인 여건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우리 국민은 자신의 가정 경제 수준을 '중산층 이하'로 인식하는 경우(60%)가 가장 많으며,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5%에 지나지 않음

[그림] 일과 여가 인식 (%)



[그림] 가정 경제 수준 (%)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 : '일이 중심이고 여유가 날 때 여가를 즐기고 있다 + 여가보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보다는 여가를 즐김 : '일보다는 여가를 즐기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은 가끔씩 빨리 정리하고 여가를 더 즐기고 있다'

6 시사점

한국인은 공동체를 중시한다. 현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개인화이다.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개인의 취향을 극도로 존중할 정도로 개인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선시했던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공동체 지향성 DNA가 남아 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딱딱하고 힘들더라도 한국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5p) 한국을 자랑스러워 한다.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다. 가족은 개인의 삶의 터전도 되지만 개인을 지켜주는 울타리도 된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도 된다(3p).

가족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개인화가 중요시되는 사회 환경에서는 가부장적인 가족은 존재할 수 없다. 가족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진심으로 우려 나오는 가족애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가족 만족도 데이터(4p 아래)를 보면 종교간에 차이가 없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 인정 데이터(7p 위)와 그 외의 다른 데이터에서도 종교별로 차이가 안 보인다. 즉 기독교가 신자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2020 새해 목표 관련 조사 결과
자기 인식과 관련한 조사 결과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우리 국민 2020년 새해 목표 '세웠다', 5명 중 1명도 안돼

- 2019년을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운 사람과 세우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세운 사람 중 목표를 달성한 사람과 달성하지 못한 사람 등 다양한데, 이런 과정에서 자신에게 실망스런 사람도 있고, 만족해 하는 사람 등 다양함.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2019년 한 해 자신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질문했는데 평균 55점으로 집계돼, 우리 국민은 자신에게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새해 목표를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18%만 세웠다고 응답하였음(조사일 : 2019년 12월 27일).

[그림] 2019년 본인 평가(100점 만점)
(%)



[그림] 2020년 새해 목표 수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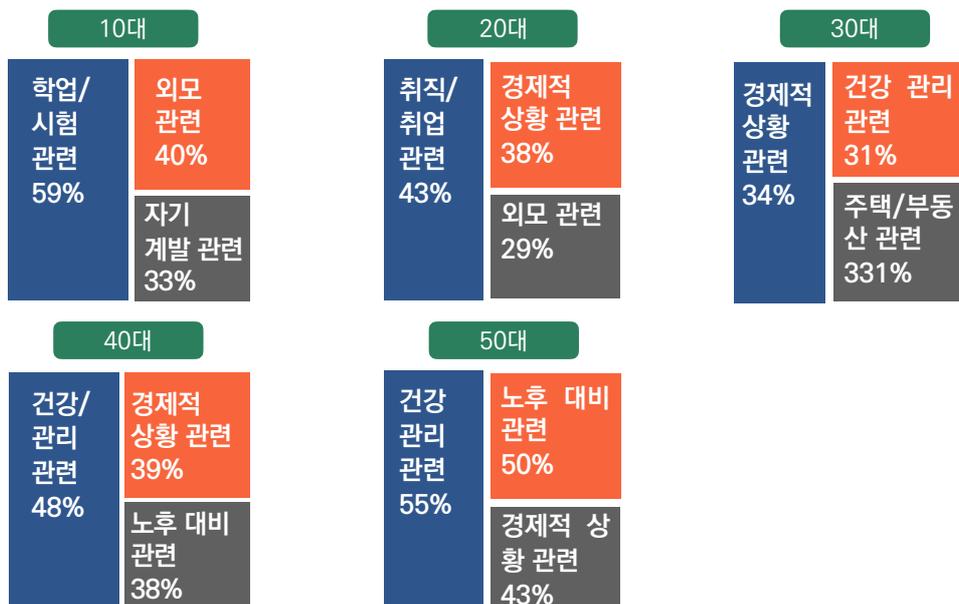


*자료출처: 탈리언 프로, '되돌아보는 2019년, 그리고 다시 꿈꾸는 2020년, 새해 목표편, 2020.01.
(전국 1,459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19.12.27)

● 2020년 새해 목표, 10대 '학업', 20대 '취업', 30대 '경제적 상황', 40대 이상 '건강'

- 연령별로 새해 목표가 상이한데, 10대는 '학업/시험 관련' 59%, 20대는 '취직/취업 관련' 43%, 30대는 '경제적 상황' 34%, 40대는 '건강' 48%, 50대 역시 '건강' 55%로 각각 조사되었음

[그림] 2020년 새해 목표 (연령대별, 상위 3위, 5순위까지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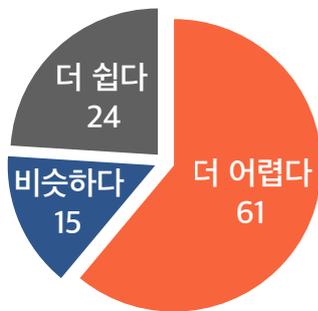
*자료출처: 탈리언 프로, '되돌아보는 2019년, 그리고 다시 꿈꾸는 2020년, 새해 목표편, 2020.01.
(전국 1,459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19.12.27)

2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61%

- 배우자 등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과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비교하면 어떻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더 어렵다’ 61%, 쉽다 24%로 어렵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남. 이는 배우자나 가족을 변화시키려다 갈등을 겪은 경험적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그림] 배우자(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과 비교해 어떤가 (%)



“우리는 자신이 힘겨워하는 일을 척척 해내는 사람에게 끌린다. 결혼하면 그 장점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바뀐다. 이를테면 가사 능력은 정리 정돈 강박증처럼 보일 수 있다. 서로의 차이에 끌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적 배우자는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견 충돌과 차이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알랭 드 보통)

*5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더 어렵다'는 매우 어렵다+어려운 편이다를 합산한 비율임
 또한 '더 쉽다'는 매우 쉽다+쉬운 편이다를 합산한 비율임
 ** 자료 출처 : 조선일보, '20년 전과 성격 달라졌다, 53%... 남이 보는 나는 그대로일 수도', 2019.01.04.
 (전국 30-60대 남녀, 4,029명, 온라인조사, 2019년 12월),

● 우리 국민 2명 중 1명 '20년 전에 비해 '내 성격 변했다'

- '사람은 안 변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국민은 실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이에 대해 20년 전과 비교해 지금 성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묻은 결과, 성격이 '달라졌다'는 응답은 53%로 국민 절반 이상이 20년 전에 비해 지금이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적 취향(음악과 영화)과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달라졌다'는 응답이 각각 54%, 51%로 절반 이상이 바뀌었다고 응답함

[그림] 20년 전에 비해 '나의 ____이 달라졌다' (긍정 비율*) (%)



*5점 척도로 질문한 것으로 '달라졌다'는 '완전히 달라졌다+달라진 편이다' 합산 비율임
 ** 자료 출처 : 조선일보, '20년 전과 성격 달라졌다, 53%... 남이 보는 나는 그대로일 수도', 2019.01.04.
 (전국 30-60대 남녀, 4,029명, 온라인조사, 2019년 12월),
<https://news.v.daum.net/v/20200104030237791>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혼자 사는 원룸 통계](#)

조선일보_2020.01.11

“아파트 공화국 아래 '원룸 공화국'이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투표율 더 높다!](#)

한겨레신문_2020.01.10

“저소득층 무시하면 ‘역설의 계급 정치’온다”



[산업재해자, 신입사원이 절반 차지](#)

중앙일보_2020.01.14

“입사 기쁨이 ‘죽음의 길’..산업재해자 절반이 1년 미만 신입”



[2019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한국일보_2020.01.15

“조국 사태 여파... 국민 88% ‘지역·이념 갈등 더 커졌다’”



[세계 주요 도시의 도심 아파트 가격 상승률, 서울이 1위](#)

조선일보_2020.01.10

“44% 뛴 서울도심 집값... 글로벌도시 상승률 1위”

스토리가 있는 기사



[이어령 교수가 전하는 새해 비전!](#)

중앙일보_2020.01.10

“이어령 ‘연초에 달려 아닌 지도 펴는 사람이 100년 끌고 가’”



[새해 결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앙일보_2020.01.15

“삶을 성공적으로 바꾼 사람들”



[올해의 키워드 : 멀티 페르소나'와 '팬슈머'](#)

중앙일보_2020.01.16

“알고도(?) 속아주는 캐릭터 놀이... 누구냐 너는”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었다. 올해부터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첫 세대인 55년생이 만 65세, 법정 노인이 된다. 그 전에는 40만~50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1만 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게다가 올해부터 세계 평균보다 급격하게 고령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중앙일보에서 신년특집으로 55년생을 해부해 '폭풍 고령화'의 실상과 과제를 연속 기사로 게재했는데 이슈 큐레이션에서 실어본다.

신년 기획- 55년 생 어쩌다 할배(중앙일보 특집)



- 2020.01.02_ [현재 노인 인구 만만 730만 베이비부머... 고령화 쓰나미 온다](#)
[노인 인구 10년 뒤 2배... 고령화 충격도 '더블'](#)
[65세? 무릎 쭈시지만 나이트 가기 딱 좋은 나이](#)
[팬 7만명, 65세 모델 김철두 '늙는 게 두려우면 노인 된다'](#)
['일흔은 돼야 노인, 우리 청춘' 경로석 손사래 치는 55년생](#)

- 2020.01.06_ [71만명 '신참 노인' 폭풍 유입... 55년생 복지비만 올 6조 든다](#)
[55년생에 드는 복지비 6조... '노인 의료비가 폭탄'](#)
["젊은이 위해 직장 그만둘수도" 지공거사 거부하는 '신참노인'](#)
[은퇴해도 경조사비 그대로인 55년생..."월 50만원 큰 부담"](#)

- 2020.01.07_ [입원 가장 많은 건 백내장, 외래 가장 잦은 병은 잇몸병](#)
[55년생 46%만 국민연금... 그나마 월평균 52만원 그쳐](#)
[55년생 절반도 못받는 국민연금, 그마저도 월평균 52만원](#)

- 2020.01.09_ ["은퇴 후 삶의 양극화 심각... 부양 부담 국가가 분담해야"](#)
[장모 간병 30만원, 미혼 자녀 50만원... 55년생 허리 휨다](#)

- 2020.01.10_ [일자리 찾아 제주 간 55년생 "애들 키울때보다 저축 많이 해"](#)
[65세 국민연금 52만원... 공무원 연금은 5배 높은 257만원](#)

- 2020.01.15_ ["가진 건 집 한 채, 끝까지 자식에 안 줄것" 현실 된 老老상속](#)
["퇴직후 늘어난 시간, '삼식이' 대신 아내 수행비서로 산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 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소식

업무 협약(MOU) 체결

: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대한민국트렌드'를 다양한 분야에서 추적(트렌드모니터)하고 있는 리서치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업무 협약을 지난 1월 16일 체결하였습니다. 이 MOU를 통해 본 연구소는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대한민국트렌드'를 전해 드리겠습니다.